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영화를 통해 여행하는 '영화와 공간: 브라질' 기획전 개최

: 한국영상자료원, 11월 18일(화)부터 12월31일(수)까지 시네마테크KOFA에서 개최
: 국내 최초 공개작 25편을 포함한 브라질영화 30여 편 상영, 국내 최대 규모
브라질영화 특별전
: 브라질 현지 시네마테크 기관과 협업해 공동 기획



▲ <템포리다> 스틸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오는 11월 18일(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시네마테크 KOFA(상암동 소재)에서 '영화와 공간: 브라질'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브라질을 주요 배경으로 한 완성도 높은 작품 30여 편을 선보인다.

'영화와 공간'은 2015년부터 이어온 영상자료원의 대표 기획전 시리즈로, 올해 아홉 번째 여정의 주제는 브라질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를 통해 상징적인 공간으로의 여행을 제안하고, 관객에게 각 지역의 문화와 시선을 스크린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브라질' 편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브라질이라는 공간의 다층적 풍경을 조명하며, 관객이 영화를 통해 마치 현지를 여행하듯 생생한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브라질영화사 돌아켜 보는 기회

이번 기획전은 총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첫 번째 섹션 '파노라마'는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80년 동안 제작된 브라질영화 중 '영화와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10편이 선정되어 상영된다. 브라질 실험영화의 고전 <리미트>(마리우 페이쇼투, 1931), 시네마 노보 운동의 대표작 <산타 바바라의 맹세>(안셀무 두아르테, 1962),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중앙역>(월터 살레스, 1998)과 <시티 오브 갓>(페르난도 메이랄레스, 2002), 그리고 최근 브라질의 젊은 거장으로 떠오른 클레버 멘돈사 필로의 데뷔작 <네이버링 사운즈>(2012) 등이 포함된다. 이 섹션의 작품들은 인물과 공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브라질영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 <중앙역> 스틸



▲ <산타 바바라의 맹세> 스틸

두 번째 섹션 '시네마 노보'는 1960년대 브라질에서 일어난 대표적 영화운동을 조명한다. '시네마 노보'는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영화 언어의 혁신을 추구한 운동이다. '머릿속의 아이디어와 손안의 카메라'라는 슬로건 아래 가난과 불평등, 억압된 현실을 예술적 힘으로 전환하며 브라질 고유의 미학인 '배고픔의 미학'을 형성했다. 정치적 참여와 형식적 실험을 결합한 이 운동은 브라질영화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후 세대의 창작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고뇌하는 땅>(글라우버 로샤, 1967), <마쿠나이나마>(조아킴 페드루 지 안드라지, 1969), <상베르나르두>(레온 히르슈만, 1972)를 비롯해 다양한 장·단편 등 총 11편이 상영된다.



▲ <상베르나르두> 스틸

마지막 섹션 '시네마 마지날과 그 이상'은 1960년대 말 '시네마 노보'의 흐름 속에서 파생된 급진적 영화운동을 조명한다. '시네마 마지날'은 제도와 검열에 맞선 저항, 그리고 기존 영화문법의 해체를 특징으로 한다. 오주알두 칸데아스, 로제리우 스간젤라, 줄리오 브레사네 등의 감독들이 미국 B급영화와 유럽 뉴시네마의 영향을 받아 거칠고 자유로운 실험정신으로 브라질영화의 미학적 경계를 확장했다. 짧지만 강렬했던 이 운동은 독립적이고 전위적인 브라질영화의 전통으로 이어지며 지금까지도 그 유산이 살아 있다. 이 섹션에서는 운동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 <가장자리>(오주알두 칸데아스, 1967), 컬트 호러영화 <코핀 조의 미묘한 세계>(호세 모지카 마링스, 1968) 등 시네마 마지날 작품 5편과 이 운동과 대화를 이어가는 브라질영화 5편이 함께 상영된다. 이 중에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하나는 적고 둘은 좋아>(오딜롱 로페스, 1970)와 <새로운 물결>(조제 안토니우 가르시아, 이카루 마르칭스, 1983)이 포함된다.



▲ <가장자리> 스틸

□ 국내에서 처음 만나는 브라질영화

이번 기획전은 총 30여 편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브라질영화 회고전이다. 페르난도 메이랄레스, 클레버 멘돈사 필로, 글라우버 로샤, 안셀무 두아르테, 로제리우 스간젤라, 호세 모지카 마링스 등 브라질영화사의 대표적인 감독들의 작품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상영작 중 25편은 국내 최초 공개작으로, 브라질 고전부터 현대 독립영화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특히 브라질 특유의 서부극 장르를 개척한 <의적>(리마 바헤투, 1953), 여성감독 수자나 아마랄의 대표작 <별의 시간>(1989), 브라질 지방의 삶의 리듬을 섬세히 포착한 <템포라다>(안드레 노바이스 올리베이라, 2018) 등이 주목된다.



▲ <별의 시간> 스틸

□ 브라질 현지 기관과 공동 기획

이번 '영화와 공간'은 영상자료원이 브라질 현지 시네마테크 기관들과 협력해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상파울루의 시네마테카 브라질레이라(Cinemateca Brasileira)와 브라질 남부의 시네마테카 카피톨리우(Cinemateca Capitolio)가 함께 참여해 국제 교류 상영을 진행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한국 고전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한국에서는 이번 기획전 '영화와 공간: 브라질'의 상영작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브라질레이라의 호베르토 소아레스(Roberto Soares) 프로그래머는 '시네마 노보' 섹션을, 카피톨리우의 레오나르두 bomfim (Leonardo Bomfim) 프로그래머는 '시네마 마지날과 그 이상'을 각각 담당했다. 두 프로그래머는 상영작 및 섹션 소개 영상을 제작해 상영 전 극장에서 공개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브라질영화 회고전을 선보인다.

자세한 상영일정은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http://koreafilm.or.kr/cinema/program.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 금일 오전 10시 오픈 예정

<영화와 공간: 브라질>

- 기간: 2025년 11월 18일(화) ~ 12월 31일(수)
-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상암동 소재)
- 입장료: 무료
- 상영작: <템포라다>(안드레 노바이스 올리베이라, 2018) 등 30여편

[참고자료] 프로그램 개요

영화와 공간: 브라질

- 상영작

섹션		제목	감독	제작년도	비고
파노라마	1	리미트	마리우 페이쇼투	1931	
	2	의적	리마 바헤투	1953	
	3	진정한 여자	알베르투 카발칸치	1954	
	4	산타 바바라의 맹세	안셀무 두아르테	1962	
	5	별의 시간	수자나 아마랄	1989	
	6	중앙역	월터 살레스	1998	
	7	시티 오브 갓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2002	
	8	네이버링 사운즈	클레버 멘돈사 필로	2012	
	9	애러비	주앙 두망스, 아폰수 우쇼아	2017	
	10	템포라다	안드레 노바이스 올리베이라	2018	
시네마 노보	11	시네마 노보	조아킴 페드루 지 안드라지	1966	단편
	12	고양이 가족	조아킴 페드루 지 안드라지	1962	단편
	13	절대다수	레온 히르슈만	1964	단편
	14	인터뷰	헬레나 솔베르그	1966	단편
	15	소총들	루이 게하	1964	
	16	도전	파울루 세자르 사라세니	1964	
	17	여론	아르날두 자보르	1966	
	18	세상의 모든 여자들	도밍구스 지 올리베이라	1966	
	19	고뇌하는 땅	글라우버 로샤	1967	
	20	마꾸나이마	조아킴 페드루 지 안드라지	1969	
	21	상베르나르두	레온 히르슈만	1972	
시네마 마지날과 그 이상	22	가장자리	오주알두 칸데이아스	1967	
	23	코핀 조의 미묘한 세계	호세 모지카 마링스	1968	
	24	모두의 여자	로제리우 스간젤라	1969	
	25	뱅 뱅	안드레아 토나시	1971	
	26	욕망의 제국	카를루스 하이센바히	1981	
	27	아틀란티다 카니발	호세 카를루스 볼리	1952	
	28	하나는 적고 둘은 좋아	오딜롱 로페스	1970	
	29	반데이이라 대통령 대 무라 브라질 박사	안토니우 칼몽	1971	
	30	장미의 바다	아나 카롤리나	1977	
	31	새로운 물결	조제 안토니우 가르시아, 이카루 마르칭스	1983	